



[라이프] 잉크도, 노트도 세상에 단 한개 문덕들의 '문화공간' 너



Life

[바이오] 대웅제약 '나보타' 영도 넓힌다 L2



# 반도체학과 지원에도 의대 쏠림 여전... 원인은 '소득 격차'

이공계 '인재 블랙홀' 의대 초강세 대기업 연계 등 반도체학과 지원에도 고소득 전문직 의사 선호도 유지될 것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지원정책에도 대입에서 의대 초강세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직업별 '소득 격차'가 꼽혔다. 의대 열풍 과열은 초등 단계까지 이어지면서 '초등 의대반'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공계 인재 블랙홀로 떠오른 '의대'가 앞으로도 선호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이공계 인재 양성 지원에 힘을 싣더라도 직업별 소득 격차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대입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학년도 대입에서는 '의대' 초강세 현상이 특히 두드러졌다. 올해 조선대 치의예과는 690.0대 1의 경쟁률을 달성하면서 2023학년도 수시·정시 통산 최고치를 기록했다. 입시 전문인 종로

학원의 분석에 의하면 약대를 제외한 의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모두 서울·수도권에서는 추가모집 인원이 '0명'으로 마무리돼 인기학과임을 입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의대

선호 현상은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에서 시작된다"며 "의사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임하는 학생들이 갑자기 늘어났다기보다는 취업 시장이 어려워졌다는 현실의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취업 시장이 어려운 만큼 고소득이 보장되고, 정년이 존재하지 않는 전문직인 의사의 선호도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해석이다. 이투스교육 관계자 역시 취업 후 소득 격차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을 갖춘 이과생들이 의대로 빠지는 현상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한국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20년 발간한 한국의 직업정보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직의 평균소득 수준은 최상위권으로 집계됐다.

소득 격차가 상당하다보니 정부와 기업이 나서 반도체학과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에도 의약학 계열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갖춰졌다. 특히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모집인원 10명 대비 등록포기율 130.0%를 기록하면서 모집인원보다 많은 13명이 등록포기했음을 알 수 있다.

임대표이사는 "정부 정책, 대기업 연계 등의 호조건에도 반도체 관련학과는 의약학계열에 밀리는 구도가 확인됐다"며 "전체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향후 후속적인 정책들이 구체화돼야 하지만, 반도체 인재 육성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의학계 쏠림 현상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더 촘촘히, 더 세심하... 시민 복지 증진 나선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 모두돌봄센터 제도 외 사각지대 돌봄 강화 영유아 문화예술 교육 지원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공공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공적 돌봄 기관으로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에 나선다.

1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최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보고에 따르면, 서사원은 올해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아이 중심·놀이중심 보육환경 구축 ▲사회서비스 생태계 지원체계 강화 ▲안전경영 및 책임경영 구축을 추진한다.

우선 서사원은 지역 사회 중심 통합돌봄 기능과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역할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작업치료사가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사원

반영해 종합재가센터의 신규 명칭을 '모두돌봄센터'로 바꾸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서사원은 설명했다. 종합재가센터의 서비스 비율은 기존

장기요양 75%, 돌봄SOS 25%에서 모두 돌봄센터로 변경 후 장기요양 40%, 긴급돌봄 60%로 기능이 전환된다. 제도 내 돌봄 중심에서 제도 외 사각지대 돌봄을 강화한 것이라고 서사원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사원은 영유아 문화예술 교육 지원 협력사업을 벌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12월까지 서사원은 소속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를 대상으로 서울문화재단과 손잡고 유아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생태계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서비스 품질관리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서사원은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사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ik1@

## 경기도 11개 공공기관,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경기바다함께해' 업무협약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경기도 산하 11개 공공기관 직원들이 안산 탄도항, 김포 대명항 등 도내 해안가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에 나선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시 등 연안 5개 시부시장,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경기도 산하 11개 공공기관장은 28일 오후 화성시 전곡항마리나 클럽하우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바다 함께해(海)'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바다 함께해(海)'는 공공기관의 사회 환경적 역할이 강화되는 변화에 대응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

해양 환경보전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참여 공공기관은 경기도 내 특정 항포구와 해안가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청소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협약기관은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11개 공공기관에서 연 4회 이상, 총인원 680명이 해안가 청소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정책 수립 ▲참여기관 평가 ▲우수참여 기관 포상 ▲홍보방안 마련 등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등 연안 5개시는 ▲활동 대상지 지정 및 관리 등 공공기관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전반을 지원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서울 천호·상계동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

최고 13층, 183세대 공급 목표

서울시가 저층주거지의 창의적 디자인과 쾌적한 주거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열린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동구 천호동 321-1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

획(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0층 이하로 제한돼 있으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할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평균 13층까지 층수를 완화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에 위치한 강동구

천호동 321-18번지 일대에는 연면적 1만137㎡, 지하 3층~지상 13층 규모의 8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노원구 상계동 모아주택 사업 계획안도 지난달 말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4·7호선 노원역과 가까운 노원구 상계동 322-8번지 일대에는 연면적 1만5721㎡,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아파트가 조성된다. 올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103세대 공급을 목표로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무 / 07:03 | 해질 / 18:26

3월 2일 (木) 음력 : 2월 11일

수도권 날씨 -2 ~ 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6/7, 동두천 -5/8, 가평 -5/7, 파주 -6/6, 서울 -2/7, 양평 -4/8, 인천 -1/5, 수원 -1/7, 용인 -1/7, 평택 -4/7

백령도 0/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美 훈련 마친 WBC 대표팀 귀국...드디어 '완전체' 된다 /사진 뉴시스  
▲베이스볼아메리카 "WBC 전력, 한국 7위"...일본은 2위

▲슈틸리케, 클린스만에 황당 조인... "분단탓 韓축구 공격 약해"  
▲손흥민·윌러, 엇갈렸던 FIFA 올해의 남자 선수 투표



▲르브론, 또 부상...갈길 바쁜 레이커스 비상 /사진 뉴시스  
▲'한국 첫 방문' 에드먼 "한일 라이벌 관계 알고 있어"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